

삶의 밑바닥... 비루하고 쓸쓸한 사랑도 사랑이다



‘그 남자의 연애사’ 한창훈 지음

“사랑을 뜻하는 스페인 말이 ‘amor’이다. ‘mor’는 죽음, ‘a’는 저항하다. 이다. 사랑은 죽음에 저항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 단어를 알고 나서야 독한 불면과 눈물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거듭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런 우리들의 연애사이다.”

작가 한창훈이 4년 만에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작가는 그동안 바다를 배경으로 갓 잡아올린 날 생선 같은 이야기를 써왔다. 그는 7년 전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여수 거문도로 들어갔다. 그의 소설에서 비린내와 갯내음이 느껴지는 이유다.

이번에 펴낸 ‘그 남자의 연애사’에는 모두 9개의 단편이 실려 있다. 작가가 그리는 여러 모습의 사랑은, 빛깔은 다르되 울림은 동일하다. 뭐랄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대중가요 가사처럼 신선하고 저리다.

주인공은 하나같이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다. 낱फल, 장녀, 약사 등 삶의 굴곡을 겪은 이들의 사랑이다. 결코 멋있거나 아름답지 않으며 비루하고 쓸쓸하다.

작가가 생각하는 사랑의 밑바탕은 그런 것 같다. 사랑은 별 게 아니며 모든 연애가 다 멋있지는 않다는 거다.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게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사랑의 추억이 있다. 거창하게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도 연애사가 있기 마련이다. 아름다웠던 기억도 있지만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이유로 끝이 난 경우도 적지 않다.

표제작 ‘그 남자의 연애사’는 섬에서 보일러를 고치는 사내의 이야기다. 그는 중년이 될 때까지 만났던 여자들에 대한 추억을 들려준다. 첫 여자는 스무



살에 만나 살림을 차린 여고생이지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린다. 두 번째 여자는 술집 여자로, 그녀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라며 떠난다. 세 번째, 네 번째 여자도 모두 ‘금방 온다’는 말만을 남기고 가버린다.

몇 번의 사랑을 하지만 끝은 모두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럼에도 그는 ‘떠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어쩌면 사랑은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달리 말하면 그것 또한 삶의 모습인 것이다. 사랑도 삶이고, 연애도 삶이다. 그 안에 파도치는 여러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9편의 소설은 저마다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서사와 독특한 글맛으로 울림을 준다.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연애사,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럼에도 끝없이 사랑을 하고, 추구한다. 작가는 말한다.

“사랑은 굶주린 개 앞에 던진 상한 고깃덩어리와 같다. 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덥석 문다. 허기가 지고 포만감이 드는 게 싫지만 식은땀과 뉘털림과 발작이 곧바로 찾아온다. 공공 오랫동안 알아야 한다. 그 시기가 지나면 또 한번의 고깃덩어리가 던져진다. 저것을 삼키면 식은땀과 뉘털림, 발작이 틀림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뻔히 알면서도 또 덥석 문다. 우리는 왜 매번 그럴 수밖에 없는가.”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길거리에서 버려진 삶을 줍다, 가치를 찾다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규직을 가진 이도 있었다. 불법 쓰레기 수집인에서부터 노숙자, 금속수집가, 대안건축물 건축가, 재활용 운동가, 아웃사이더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도 다양했다.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폐기물이나 공공위생 관련 기관보다 한 발 앞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는다.

이들의 거주지는 도시 외곽의 변두리로, 도시와 도시 사이의 사회적·문화적 틈에 놓여 있다. 저자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맹목적인 소비풍조에 경종을 울린다. 또한 ‘쓰레기’가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닌 재활용과 관매가 가능한 새로운 의미로 전환된다.

〈시대의 창·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깊숙히 물어뿔던 상처를 대면하라

‘당신으로 충분하다’



특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차츰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모습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저자는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치유자가 되는 치유의 선순환, 즉 ‘모든 인간은 치유적 존재다’라는 명제를 보여준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나와의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무엇보다 그렇게 되었는지 조곤조곤 설명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내게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물었던 질문들에 대해 한 번에 몰아서 찬찬히 대답하고 싶었다.”

〈푸른숲·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중국 사신이 쓴 조선 체험기

‘조선부’

동월 지음



물품을 하나도 받지 않을 만큼 청렴했다. 지금까지 ‘조선부’는 두 번 번역된 적이 있었다.

김 박사의 번역본 저본(문서의 초벌 원고)은 북경 대학 주기초본으로 위 두 번역본의 저본과는 다르다. 청나라 건륭 황제의 명으로 편찬된 중국 최대의 총서인 사고전서에 ‘조선부’도 포함해 편찬되었는데, 이 저본은 사고전서 편찬 전의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심미안·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내로 어머니로 예술가로...

‘영원한 달빛 신사임당’

안영 지음



한국판 현모양처의 표본인 신사임당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장편소설 ‘영원한 달빛 신사임당’이 나왔다. 경기 양평 황순원문학촌 소나무마을 촌장 안영 작가의 작품이다.

광양 출신인 저자는 2005년 1월부터 월간 ‘참 소중한 당신’에 연재하기 시작해 2007년 ‘그 영원한 달빛, 신사임당’이라는 제목으로 초판을 발간했다. 이번 증보판은 처음 원고에서 미비했던 몇 곳을 보완하고 다듬었으며, 소설에 신사임당의 그림까지 결

했다. 고리타분한 자녀교육 방법론이나 순종적인 여성상만을 그리지 않았다.

작가는 말한다. “남편을 다독이며 바른 길로 이끌어 준 아내, 사람됨을 최우선으로 자녀 교육에 정성을 쏟은 어머니, 시문·그림·사에·자수 등으로 자아성취를 이뤄낸 예술가... 신사임당이야말로 500년을 앞서간 미래지향적 여성으로, 그보다 합당한 여성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위즈앤비즈·1만4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질병의 고통까지도 차별... 건강불평등의 현주소

‘건강할 권리’

김창엽 지음



진주 의료원 폐쇄, 포괄수거제 논쟁, 4대 중증질환 논쟁 등 최근 보건 의료 이슈와 이주여성, 빈곤층 아이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등 건강과 사회가 맺고 있는 근본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내 ‘질병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가?’ ‘의사 아카데미와 체계바라기 왜 정치와 사회로 눈을 돌렸나?’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정책은 어떤 정치인가?’ 등 물음을 던진다.

건강권을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건강 불평등 역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던진다.

〈후미너티스·1만5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간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그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책은 김유신의 역사에 숨을 불어넣어 독자들에 생생한 이야기를 선사한다. 저자는 사실과 픽션을 바탕으로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재해석했다. 글과 그림 뿐 아니라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 소설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도입했다. 역사책이지만 기승전결의 구도가 잘 드러나게 함으로써 ‘역사책은 읽기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어드북스·1만8000원〉

▲과학사로서 보는 범죄의 흔적=베테랑 신문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와 일선 형사들의 자료, 치밀한 수사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수사 이야기. 서울신문에 연재된 최초의 신문 범죄학 리포트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를 다듬어 책으로 펴냈다. 저자인 유영규 기자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과학수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36개의 사례를 담았다.

〈알마·1만6500원〉

▲전쟁은 사기다=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 스페들리 버틀러가 고백하는 전쟁의 충격적 진실. 1930년대 초 전곡을 누비며 한 연설을 보강해서 펴낸 이 책에서 그는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밝히고, 애국심과 영웅심으로 포장된 전쟁의 추악한 이면을 고백해 뜨거운 찬사와 차가운 비난을 함께 받았다.

〈공존·1만원〉



▲두 시점의 개념사=근대라는 시공간에서 발현되는 언어의 역사성과 이에 따른 개념의 역사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천착한 학자들의 결과를 담았다. 책은 실전적으로는 동아시아 근대 개념에 관한 연구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개념사 일반의 시각과 방법에 관한 연구물이다. 1부 ‘개념의 공간 운동과 현재성’ 2부 ‘개념의 시간 운동과 동시성’으로 나눠 개념사의 역사적 구조를 밝혀낸다.

〈푸른역사·2만3000원〉

▲욕망을 부르는 향기=후각의 모든 비밀을 소개한 책. 저자 레이첼 허츠는 20년 동안 후각 작용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왜, 어떤 냄새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향기로 인해 유도된 기억은 무엇이 특별하고 다르지 밝혀냈다. 감정이 냄새를 지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냄새와 감정이 서로 밀접하게 결부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도 연구했다.

〈유진트리·1만5000원〉

▲타사의 행복=맨발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산 평화작가이자 화가인 타사 튜더의 포토에세이 ‘타사의 행복’과 그녀의 정원을 공개하는 ‘타사의 정원’이 출간됐다. 타사가 직접 쓴 유일한 자전적 에세이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를 빈티지풍의 짧은 감격을 입혀 재탄생시킨 캐주얼판이다.

〈월북·1만3800원, 1만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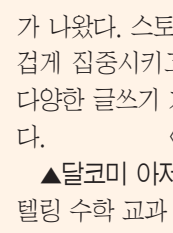
▲올보 엄마=대한민국 문학상 수상 동화작가 이동태의 감성 창작동화. 풍족하게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정경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리움으로 언제나 눈물 짓는 향이 엄마. 가족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과 엄마를 위하는 아빠와 향이의 사랑, 그리고 하늘이 가족의 끈질긴 가족 찾기는 정경으로 잃어버리고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옴죽·1만원〉

▲시조님, 시조님 안녕하세요?=건국 신화로 떠나는 신나는 역사여행. 건국 신화는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역사를 신성하게 꾸민 이야기다. 건국 신화를 꾸며낸 이야기라고들 하지만 건국 신화를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신화이고, 어디서부터가 역사일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열다·1만원〉

▲우리에게 온 특별한 아기=어느 날 아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몽땅 뒤바뀌고 만다.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에 해매던 엄마 아빠들은 결국 내 아기도 아닌 아기도 내 아기로 받아들



이고 사랑으로 품는다. 내 아기가 못지않게 내 아기가 아닌 아기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어린이 작가정신·1만원〉

▲다독다독 독서록 참 쉬워! 외=2013 통합 교과에 따른 주제별 스토리텔링 성공습득 시리즈. 1권 다독다독 독서록 참 쉬워!, 2권 차근차근 읽기 쓰기 참 쉬워!, 3권 매일 10분 습관 읽기 참 쉬워!

가 나왔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어린이를 즐겁게 집중시키고, 기승전결이 뚜렷한 동화로 다양한 글쓰기 감각을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한다.

〈풀빛미디어·각 권 1만1000원〉

▲달코미 아저씨와 빵 만들기 대회=스토리텔링 수학 교과 과정과 일치하는 수학 그림책. 달코미 아저씨가 빵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규칙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시돼 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시공주니어·9500원〉

어린이 책꽂이